

## 신복윤의 생애와 신학

안명준  
(평택대학교)

### 〈한글초록〉

본 논문은 신복윤의 생애를 통하여 형성된 그의 신학적 전통을 추적하고 그의 저술들을 분석하여 신학사상과 신학적 공헌을 조사하는 것이다. 신복윤에게 크게 영향을 준 한국의 학자는 그가 존경하고 배운 직접적인 스승인 박형룡과 박윤선이 있다. 박형룡에게는 조직신학과 개혁신학을 배웠고 박윤선에게는 그의 신앙과 도덕과 학문이 바로 자기 신학의 표준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바로 이것이 그의 신학적 전통이다.

그가 번역한 책들은 그야말로 한국 신학계에 보물 같은 신학 작품들이었다. 그의 저서는 대부분 칼빈신학에 대한 연구서였다. 그의 이런 신학사상은 성경관, 하나님의 절대주권, 교회론, 종말론, 그리고 개혁주의에 대한 강조에서 나타난다. 신복윤의 신학은 칼빈을 통하여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신학을 세우는 방식이다. 칼빈과 성경의 두 기둥을 통하여 한국의 개혁신학을 바르게 정립하였고, 순결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헌신하였다. 그는 칼빈에게 매료된 정통 칼빈연구가요 정통 개혁신학자였다.

투고일:2017.3.10.    수정투고일:2017.4.17.    게재확정일:2017.4.19.

그의 신학적 활동으로 한국에서 칼빈연구의 학술적 기초가 세워졌다. 그는 정통 개혁주의 조직신학을 발전시켰으며, 교회의 순수성을 주장하였고, 변혁적 문화관을 강조하였으며, 그리고 “버림의 종말신학”을 주장하였다.

그는 칼빈의 사상에 근거하여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국의 신비주의, 세대주의, 유아기적 근본주의를 비평적으로 정리하여 한국에서 참된 정통 개혁신학을 세우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주제어** : 박형룡, 박윤선, 신복윤, 칼빈신학, 개혁신학, 하나님의 주권, 문화관, 종말론

## I. 서론

한국의 정통 조직신학자로서 박형룡을 1대로 본다면 남송(南松) 신복윤은 제 2대 학자로 볼수 있다. 그는 박형룡을 참된 위대한 신학자로서 존경하고 스승의 학문을 진심으로 존중하기에 후학들에게 스승의 신학 전통을 전수하고 발전시키려고 한평생 노력하였다. 또한 바른 정통 개혁신학을 후대에게 전승하는 다리를 놓았으며 신학적으로 연약한 한국 신학계에 개혁신학과 칼빈신학에 관련된 원서들을 번역하여 소개함으로써 오늘날 한국의 신학적 발전에 크게 공헌한 학자이다.

남송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그의 신학적 역할은 그가 한국에서 칼빈 르네상스를 일으킨 주역이며 칼빈연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sup>1</sup> 박형룡에 대한 연구 “특집: 박형룡의 개혁신앙 재조명”, 『한국개혁신학』 21 (2007).

칼빈주의 정통신학자였다는 것이다. 이런 그의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늘 겸손하며, 인격적이었는데 이런 품성은 부친의 인품과 학문성을 이어받았기에 선비적인 학자로서 평생 칼빈을 연구하고 이 분야에 큰 공헌을 이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칼빈학자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경건한 목회자요 신학자이다. 그는 2009년 요한칼빈탄생500주년 기념사업회로부터 '한국의 위대한 칼빈 신학자'로 선정되었다.<sup>2</sup> 2015년 연세신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신과 대학 동문들이 집필한 연세 인물들로 세브란스와 언더우드 등 30명을 선정하여 출판한 『인물로 보는 연세신학 100년』에 선정되었다. 1970년 이후 한국교회에 칼빈과 개혁신학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조직신학과 칼빈신학 분야에서 후학들에게 가장 영향력있는 신학자로 인정받았으며 2016년 1월 14일에 소천하였다.

현재까지 남송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본 논문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 형성된 그의 신학적 전통을 먼저 살펴보고, 그의 저술들을 분석한 후에 개혁신학자로서 남송 신복윤의 신학사상을 살펴보고 그의 신학적 공헌을 평가할 것이다.

## II. 남송(南松) 신복윤(申福潤)의 생애<sup>3</sup>

남송(南松) 신복윤(申福潤)은 아버지 신정훈(申整勳)과 어머니 오정숙(吳正淑)사이에서 1926년 10월 27일(음력)에 태어났다. 위로 누님이

<sup>2</sup> 한국의 위대한 칼빈 신학자로 신복윤, 한철하, 이종성, 정성구, 이종윤, 이수영이 선정되었다.

<sup>3</sup> 남송 신복윤박사의 아들인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신성철 선생님의 도움으로 가족사의 자세한 정보를 얻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복윤에 대한 최초의 인물연구로 김재성, “신복윤 교수의 조직신학과 한국 교회사적 의의”, 『칼빈의 신학과 한국교회의 과제』, 신복윤 명예충장 은퇴기념 논문집 출판위원회 편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1), 49-63. 그리고 개혁 신학자와 칼빈 신학자의 관점에 남송에 대한 최근 연구로 김재성, “신복윤, 개혁신학의 정립과 칼빈 연구를 정초하다”, 『인물로 보는 연세신학 100년』, 연세대학교와 신과대학 동문회 편저 (서울: 동연, 2015), 632-659.

네 분이 계셨고 독자였다. 그의 고향 주소는 평안남도 순천군(順川郡) 사인면(舍人面) 옥전리(玉田里) 557이며, 평양에서 북쪽으로 몇 십리 거리에 있다. 예전의 사인면(舍人面)은 지금 평성시(平城市)로 바뀌어 평안남도 도청소재지가 되었다.

순천군은 일찍이 유풍(儒風)이 강한 지방으로, 순천향교, 자산향교, 은산향교가 있고, 각 마을에 서당이 있었다. 1931년 조사에 의하면, 142개의 서당에 1,811명의 학동(學童)이 있었다고 한다.<sup>4</sup> 순천군은 당시 최고의 교육도시였다. 애국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교육 구국 운동이 이 고장에도 번져 사학 기관들이 시작되었다. 이들 사학은 주로 기독교 관계자와 지역의 유지들에 의하여 시작된 기관들이다.

1905년 순천읍에 장로교 계통에서 설립한 의영학교(義英學校)를 시초로, 같은 해에 은산면에 장로교 계통의 명덕학교(明德學校)가 세워졌으며, 1909년 자산면에 장로교 계통의 덕림학교(德林學校), 선소면에 장로교 계통의 신민학교(新民學校), 신창면에 감리교 계통의 일신여학교(日新女學校) 등 기독교계 학교가 많이 설립되었다. 이 밖에 은산면에 김이용(金履鎬)이 세운 보창학교(普昌學校), 내남면에 문진호(文鎭鎬)가 세운 문창학교(文昌學校), 후탄면에 윤원정(尹元鼎)이 세운 광명학교(光明學校), 자산면의 명신학교(明信學校) 등이 지방 유지들에 의하여 설립되어 민족 교육에 힘썼다. 1911년 순천보통학교가 세워졌으며, 1920년대에 와서 순천읍에는 유림회에서 대동학관(大同學館)을 세웠으며, 같은 해 천도교에서는 보성학원(普成學院)을 설립하였다. 또한, 군내의 교육 인사들은 농잠(農蠶)의 중요성을 깨달아 1925년 순천노동학원(順川勞農學院)과 순천양잠기술학교(順川養蠶技術學校)를 세워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고, 여성 중등교육을 위하여 1943년 순천고등여학교(順川高等女學校)를 설립하여 여성의 개화에 노력하였다.<sup>5</sup>

<sup>4</sup> “순천군 [順川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sup>5</sup> “순천군 [順川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런 유교적이며 교육적인 고장에서 남송은 그가 다녔던 교회는 사인장(舍人場) 교회<sup>6</sup>였다. 어머니는 신앙심이 좋으신 그 교회의 집사였고 아버지는 해방 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해방 후에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그의 집은 부유했다. 부친은 재산이 많고 논을 많이 가진 지주였으며 키는 크지 않았고 구한말에 과거를 준비할 정도로 학문이 많은 학자였다. 그래서 그의 부모님은 어릴 때 그를 일본에 유학을 보냈고 그는 동경에 있는 일본대학교 부속 제2 상업학교를 다녔다.

신복윤은 해방 후 북한의 공산당들이 고향의 교회를 꺾박하기 시작하자 부모님과 누님들을 두고 사인장 교회의 유승복 전도사와 함께 194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직전에 월남하였다. 누님 한 분도 월남하였는데 소천하였다. 남송 신복윤은 서정숙 사모와 결혼하여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다.<sup>7</sup>

그는 월남 후 1946년 9월 말 조선신학교에서 같은 기숙사 방에서 김준곤을 만나게 된다. 두 분은 형제 같은 친구로 발전하게 된다. 월남한 남송은 피난 생활 중 한때 폐결핵으로 고생하였다. 1948년 총신대학교(구 장로회신학교)를 제 1회로 졸업한 후 절친인 김준곤의 소개로 문준경 전도사가 개척한 신안군 중동리에 있는 교회에서 요양을 하였다.<sup>8</sup> 그는 장로회신학교 제 1회 졸업생인 정규오와 김준곤 등이 포함된 51인 신앙 동지 회원이었다. 김준곤과 깊은 우정을 소개하면 신복윤은 2011년 고(故) 김준곤의 2주기 추모예배순서 가운데 설교에서 “김 목사님은 바쁜 가운데서도 전화를 걸어 ‘신형, 살아 있소’라며 안부를 묻곤 했지요. 돌아가신 이후로도 전화가 올 것 같아 요즘도

<sup>6</sup> 사인장 교회는 1945년 해방 후에 순교자 최감은 목사가 잠시 담임이었다. 그는 1939년 평양신학교 34회로 졸업하고 가난사람들을 도와주었다. 6.25 사변시에 대동강변에서 총살형을 당했다. 참고 “최감은 목사,” 한국교회 순교자기념사업회, <http://www.kcmma.org/>.

<sup>7</sup> 맨 위로 딸 신성애, 아들로는 신성우, 신성도, 그리고 신성철이다.

<sup>8</sup> 김준곤, “나의 친구, 신복윤,” 『칼빈의 신학과 한국교회의 과제』, 43-44.

한없이 기다릴 때가 많아요”라고 전했다. 장로회신학교에서 동문수학했던 합동신학대학원 명예총장 신복윤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비유하면서 김 목사를 그리워했다.<sup>9</sup> 사실 두 분은 신학교 시절에 매우 친하여 산에 가서 천막치고 일주일도 함께 지냈다. 한번은 15일간 한 방에서 함께 금식기도를 할 정도였다.

남송은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한 얼마 후에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에 들어갔고 1955년 신학석사(Th.M.)를 졸업 후 장로회신학교에서 강사가 되었다. 그 후로 교수로서 길을 걷게 되었다. 1956년에서 1958년까지 광주신학교(현 광신대학교)에서 1960년에서 1961년까지 관동대학교에서 가르쳤다. 1961년 총회직영신학교인 칼빈대학교로 옮겼는데, 1962년 2월 제3대 교장서리로 취임하였고, 1967년까지 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미국 웨스트 침례신학교(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1968-1970)에서 버나드 램(Bernard Ramm, 1916-1992)에게 배웠으며, 남가주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잠시 수학하고 후에 ‘칼빈의 신 지식론’(Calvin's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1970-1972)<sup>10</sup>에서 1972년 6월 4일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였다.<sup>11</sup> 이 논문은 한국학자로서는 최초의 칼빈전공 논문이었다. 신복윤은 그때 화란자유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 남아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더 많은 학문적 훈련을 포기하고 귀국하였다. 1972년 8월 13일 내수동 교회에서 그를 담임 목사로 시무하기 위한 청빙투표가 가결되어 1975년 2월 23일까지

<sup>9</sup> “김준곤 목사 떠난지 2년... 400여명 추모예배서 ‘민족복음화’ 유지 되새겨”,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5405456&code=23111212>. 국민일보, 2011-09-29.

<sup>10</sup> 이 학교는 윌리엄 스튜어트 맥버니(William Steuart McBirnie)에 의해 1969년 설립되었다. 당시 학장(Dean) 로버트 고든 그랜트(Robert Gordon Grant)박사에 의해 박사학위증이 발급되었다.

<sup>11</sup> “신복윤”, 『동아일보』, 1972년 7월 8일(토요일) 5면, 학위소식(철학). 두 번째로는 이수영가 1984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에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경험의 개념을 분석한 논문을 썼다.

교회를 위하여 목회를 했으며 이는 후에 실제적이며 목회적인 신학교육에 큰 도움이 되었다. 비록 몇 년간의 목회 경험이 신학자로서 현장 교회를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지만 그는 1959년 이후 총신대학교에서 줄곧 강사를 해왔는데 1972년부터 박형룡의 조직신학 분야의 후임으로 명실공히 장로교 합동교단의 조직신학의 수장으로서 1980년까지 봉직하였다. 1980년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가 설립되던 해부터 2005년까지 조직신학교수로서 그리고 1985년 3월 5일 제2대 교장을 했으며 2016년 소천하기 전까지 명예총장이었다.

신복윤하면 칼빈과 항상 동행하는 신학자로 이미 후배 신학자들에게 알려져 있다. 1988년에 한국칼빈학회가 새롭게 시작될 때는 이종성이 회장직을 맡고, 그가 부회장직을 맡았으며 그 후 1990년 ACTS에서 한국칼빈학회가 열렸을 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sup>12</sup>

그의 조직신학 수업은 아주 독특하였다. 항상 강의 시작은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였다. 가장 독특한 점은 “죄짐맡은 우리 구주”(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487)를 매 강의 시작 전에 반드시 불렀다.<sup>13</sup> 아마도 신복윤 교수는 북한에 두고 온 아버지와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면서 평생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유학시절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이 찬송가로 위로받고 힘을 얻었을 것이다.<sup>14</sup>

남송은 인격적 민주적 소통의 신학자이며 영적 고상함과 품위를 지키는 조직신학 교수라고 제자들이 평가한다. 그의 많은 제자들이

<sup>12</sup> 한국칼빈학회, 『한국칼빈학회 50년의 발자취: 회고와 전망』 박경수 편저 (성남: 북코리아, 2014), 192.

<sup>13</sup> 이 찬송가의 작가인 J. 스크라이븐(J. Scriven)이라는 사람은 회생과 겸손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기 이틀 전 그의 애인이 수영하다가 익사하자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는 전 생애를 기도와 성경연구로 살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헌신하였다. 그런 어느날 자신을 평생 뒷바라지 하시던 어머니님이 심한 중병에 걸리자 어머니와 자신의 용기를 복돋우기 위해서 이 찬송을 1855년에 작사했다고 한다.

<sup>14</sup> 신복윤은 1960년대 사모님과 함께한 미국 유학시절 한국에 있는 아이들 걱정과 보고픔이 우울하게 만들었는데 두 분이 가정 예배시 이 찬송가를 수시로 불렀는데 귀국한 후에도 계속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신복윤, “신복윤 명예총장 인터뷰”, 『합동소식』, 제1145호, 2001년 6월 30일.

그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인격적으로 제자들을 교육하고 소통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떤 신학적 논의에서도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강압적으로 훈계하지 않고 민주적인 쌍방향의 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점에서 또한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모습에서 존경받는 신학자였다.

### III. 신학적 영향을 준 한국의 두 학자

신복윤에게 크게 영향을 준 한국의 학자는 그가 존경하고 배운 스승인 박형룡과 박윤선이<sup>15</sup> 있다. 박형룡에게는 조직신학과 개혁신학을 배웠다. 박윤선에게는 그의 신앙과 도덕과 학문이 바로 자기에게 표준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볼 수 있다.

박형룡으로부터 신복윤이 받은 영향은 그가 스승을 존경하는 표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001년 명예총장이었던 신복윤의 인터뷰는 다음과 같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분은 제게 조직신학을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고 박형룡박사님입니다. 제 결혼 주례를 서 주시고 외국유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의 처음 번역서인 「기독교신학개론」에 분에 넘치는 추천서까지도 써 주셨습니다. 그분은 매우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였으며 생활이 깨끗하고 눈물이 있고 시가 있었습니다. 그의 조직신학 책에는 군데군데 시가 개재되어 있지요. 키가 작은 탓에 ‘작은 거인’이라고 하였습니다. 100년 만에 한번 만날까 말까할 정도의 위대한 지도자요 성도였습니다.<sup>16</sup>

<sup>15</sup> 박윤선에 대한 연구 “박윤선의 개혁신앙 재조명”, 『한국개혁신학』 25 (2009).

<sup>16</sup> 신복윤, “신복윤 명예총장 인터뷰”, 『합동소식』, 1145.



이런 스승에 대한 감사는 박아론은 지은 『나의 아버지 박형룡』이라는 책의 추천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신복윤은 아래와 같이 스승에 대하여 최고의 찬사로 진술했다.

저는 그분 밑에서 조직신학을 배웠고 그분으로부터 건전한 신앙과 그의 고귀한 인격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박형룡박사님은 한국교회의 최고의 신학자요 가장 존경할 만한 인격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는 해방 전후 한국교회의 신학적 혼란기에 성경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바른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날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sup>17</sup>

1947년 조선신학생 51명이 김재준의<sup>18</sup>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여 신앙동지회를 만들었는데 신복윤도 그 중에 한 학생이었다. 이런 신학적 문제를 바로 보게 한 것은 바로 박형룡이 1943년에 쓴 『기독교 근대신학 난제선평』이 바로 길잡이였다고 말한다.<sup>19</sup> 당시 만주 봉천신학교에 있던 박형룡은 송상석 목사의 간언과 조선신학생 51명의 간곡한 서한을 받고 부산 고려신학교로 귀국하였다. 당시 그 서한은 문장력이 좋은 분이 작성하고 글씨를 잘 쓰는 신복윤이 대필하였다.<sup>20</sup> 장로회신학교는 1948년 6월 3일에 109명의 편입생을 받아서 개교하였고 7월 9일 제 1회 2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신복윤이 포함되었다.<sup>21</sup> 신학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그는 부산 고려신학교와 서울 남산에 있는 장로회신학교에서 박형룡에게 배우기 시작하여 평생 은사로서

17 신복윤, “추천사,” 『나의 아버지 박형룡』, 박아론 지음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4).

18 김홍만, “장공 김재준의 신학 여정,” 『한국개혁신학』 38 (2013): 81-117.

19 신복윤, “한국교회 지도자 박형룡,” 『나의 아버지 박형룡』, 404.

20 신복윤, “한국교회 지도자 박형룡,” 『나의 아버지 박형룡』, 405.

21 명단은 김준곤, 김덕수, 백예원, 김동수, 박창환, 박치순, 박요한, 박영창, 박충낙, 손치호, 손두환, 신복윤, 이노수, 엄두섭, 이양배, 장세용, 윤광섭, 하종관, 최석홍, 차남진, 전상성, 조원곤, 정희찬, 박석규, 정규오이다. 김남식, 『아름다운 원칙주의자 해원 정규오 목사』 (서울: 새한기획 출판부, 2007), 164.

존경하고 그의 학문적 전통을 칼빈과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발전시키게 된다. 비록 수학연한은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신복윤은 박형룡을 스승으로 모시고 신앙과 인격을 배우고 신학훈련을 받은 것을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평생 스승이 저술하신 교의신학만을 교과서로 사용하였다고 고백한다.<sup>22</sup>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도서관에 신복윤 교수가 기증한 유품들 가운데 그의 스승 박형룡 박사가 친필로 싸인하여 기증한 조직신학책이 있다. 그 책에서 신복윤은 스승의 저서를 읽고 분석하고 강조한 표시로서 그가 밑줄을 친 페이지들이 여러군데 발견되었다. 또한 박형룡의 신학은 신복윤의 교의학서론에서 풍부하게 나타난다. 특별히 교의학 개념과 교의학 방법과 역사에서 유사하게 전개되었다.

사당동에서 박형룡은 교장이시면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는데 이 과목은 중요하기에 다른 교수에게 맡기지 않다가 신복윤에게 맡겼다.<sup>23</sup> 이것은 박형룡이 신복윤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를 이을 후계자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복윤이 스승에 대한 결론적 찬사는 “나는 그를 한국 교회에서 최고의 목자요, 신앙인이요, 신학자요, 그리고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sup>24</sup>

신복윤은 또한 박윤선으로부터 신학을 전수 받게 되었다. 조선신학교 신앙동지회 51명이 퇴학 후에 박형룡이 고려신학교에서 오셨기에 함께 내려갔다고 한다. 그때 신복윤은 박윤선을 만나서 1년을 배우게 되며 평생 제자로서 그리고 총신과 합신에서 가까이 함께 교수를 하면서 박윤선의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박윤선의 부인이신 이화주 사모는 신복윤의 선배로서 같은 고향분이며 같은 학교출신이다. 사모는 평양기

<sup>22</sup> 신복윤, “한국교회 지도자 박형룡”, 『나의 아버지 박형룡』, 406.

<sup>23</sup> 신복윤,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든든한 표준”, 『박윤선과의 만남 2: 교회개혁과 개혁주의 신학』, 안만수 (서울: 영음사, 2013), 11-12.

<sup>24</sup> 신복윤, “한국교회 지도자 박형룡”, 『나의 아버지 박형룡』, 406.

독병원 간호사였는데 해방 후에 부산에 내려와서 고려신학교를 1952년 4월 9일에 졸업하였다.<sup>25</sup>

신복윤에게 있어서 박윤선의 신앙생활과 학문은 사상적으로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든든한 자신의 신학의 표준이 되었다고 한다. 그의 책을 읽으면 틀림없고, 그런 점에서 박윤선은 신복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특별히 박윤선의 여러 주석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기도와 신앙 그리고 도덕에서도 존경하는 스승으로 말한다.<sup>26</sup> 그러나 모든 신학적 주장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찬동은 아니었다. 예를들면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한 설명에서 신복윤은 이 두 스승이 한국 신학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러나 본인은 이 견해를 소개할 뿐이지 따르지는 않는다.<sup>27</sup>

#### IV. 남송(南松) 신복윤의 저술들

그의 신학적 활동의 시작은 번역에서 시작한다. 번역은 해석이 들어가는 매우 어려운 신학적 활동이다. 그가 번역한 책들은 그야말로 한국 신학계에 보물 같은 신학 작품들이었다. 1958년 3월에 뵈콕의 『기독교 신학개론』(개 1996년)을 시작으로 1959년 칼 헨리의 『20세기 구미신학』, 1959년 뵈콕의 『기독교 교리사』(재 1990년), 1965년 제임스 스토크의 『예수전』, 1987년 클로스터의 『칼빈의 예정론』, 1990년 헨리 미터의 『칼빈주의 근본원리』, 1990년 루이스 뵈콕의 『교회론-교회와 은혜의 수단에 관한 교리』, 1990년 죠지 래드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 1990년 로에인 뵈트너의 『천주교의 마리아 교리는

<sup>25</sup> 신복윤,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든든한 표준”, 12

<sup>26</sup> 신복윤,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든든한 표준”, 12

<sup>27</sup> 신복윤, 『종말론』 (서울: 개혁주의신학협회, 2001), 331.

성경적인가?』, 1995년 공동으로 번역한 칼빈의 『기독교강요』였다. 개혁주의 신학에 필수적인 책들이 신학의 불모지였던 시대에 번역을 통하여 큰 공헌을 이룬 증거들이다.

주로 스승인 박형룡을 존경하였기에 단독 저서를 내는데 서두르지 않았던 그가 1981년 처음으로 자신의 저서로 조직신학의 입문서인 『기초 교리학』을 출판하였다. 1990년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1993년은 칼빈 연구가로서 신학계에서 명저로 알려진 『칼빈의 신학사상』을 출판하게 된다. 이 책은 한국의 칼빈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저서가운데 하나이다.

2001년은 『종말론』을 첫 출판(2011년에 3쇄)을 하였다. 그는 10년 전 개혁주의 신행협회로부터 기독교론을 집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수년전에 종말론으로 바꾸었다. 이 책의 구조는 뽀콱 교수와 박형룡과 거의 유사하다. 종말의 역사와 한국의 종말 사상을 첨가한 점이 특이하다. 개인종말론과 일반종말론으로 구분하며, 종말론과 다른 교리와 관계 그리고 교회사에 나타난 종말론을 분석하고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다양한 견해들 그리고 종말론의 여러 견해들 도덕적 종말론, 철저한 종말론, 수직적 종말론, 실존적 종말론, 실현된 종말론, 그리고 미래적 종말론을 다룬다.

2002년에는 과거에 나온 1981년 초판 『기초 교리학』을 수정하여 증보판으로 『교의학 서론』을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에서 발행하였다.<sup>28</sup> 제 1장 교의학의 개념에서 교의학의 필요성을 보완했는데 교의학은 이단을 대항하고, 인간의 통일된 지식을 채우는 일에, 그리고 교리적 설교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의학의 원리라는 소제목을 제거하고 교의학의 과제로서 통합적 과제, 증명과 변호의 과제, 비판적 과제, 교회적 과제, 그리고 명료성의 과제를 다룬다. 또 교의학의 원천이라는

<sup>28</sup> 신복윤, 『교의학 서론』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2).

소제목을 추가하였는데 원천으로서 성경, 신경과 신앙고백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포함하였다. 교의학의 방법은 대폭 수정을 하였다. 초판의 경우는 반틸의 유신론적 방법을 소개하였지만 수정판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신학 방법을 소개한다. 즉 신학 연구는 성경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며, 교회사의 도움을 얻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신학 연구는 경건과 함께 시작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신학 연구에 있어서 경건 생활은 필수적인데, 기도와 경외심 그리고 마음의 청결과 사랑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한다.<sup>29</sup>

2005년 『칼빈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저술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칼빈의 조직신학을 보여주었다. 이 책에서 칼빈신학을 지배하는 원리는 인간론이나 구원론적이거나 교회론적이 아니라 칼빈의 신학은 하나님 중심 신학이라고 확고하게 말한다. 칼빈의 경우 신학적 활동의 중요성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그 중심에 놓았다는 칼 홀(Karl Holl)의 주장을 동의하면서 위필드의 하나님 중심의 개념을 소개한다.

2007년 칼빈학자 신복윤은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들』이라는 저서를 출판한다. 이 책의 저술 동기는 무엇보다도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쉽고도 명쾌하게 진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책에서 특별히 중요한 점은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을 설명한 후에 책의 뒷 부분에서 한국적 개혁신학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성경적 개혁주의의 발전을 조망하고 있다. 먼저 한국 장로교 신학에서 개혁주의 신학의 시작과 발전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어서 한국 장로교회가 바른 개혁주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4가지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세대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 그리고 근본주의라고 한다. 이 4가지를 한국의 개혁주의 안에서 제거하고 성경에 철저한 신학을 재확인하는 운동을 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개혁주의라고 저자는 말한다.<sup>30</sup> 그가

<sup>29</sup> 신복윤, 『교의학 서론』, 65-71.

제시한 4가지 문제점을 당시의 신학적 지평에서 매우 혁신적인 발상으로 그의 신학의 발전을 보게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칼빈 신학자 신복윤은 그야말로 교회의 신학자로 칼빈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하여 『존 칼빈』을 출판한다.<sup>31</sup> 이 책의 특징은 역사적이며 신학적인 두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순수하고 거룩하게 세우기 위한 개혁자의 삶을 보여 준 점이다. 기존의 칼빈의 생애를 저술한 학자들은 주로 교회사적 관점과 역사적 관점에서 칼빈의 생애를 서술하던지, 아니면 칼빈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 중심 주제를 가지고 신학 사상을 진술한 연구물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신복윤은 이런 연구방식을 벗어나 그가 머리말에서 역설한 바와 같이 칼빈의 위대한 목적은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실현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저자는 종교개혁의 교회론적 관점 속에서 당시의 부패한 교회의 역사적 배경과 이단들의 교리적 공격 속에서 칼빈의 활동을 신학적이며 성경적 근거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sup>32</sup> 그 동안 저자는 칼빈학자로서 칼빈 신학과 칼빈의 중심주제들을 발표한 것과 대조적으로 교회의 신학자로서 칼빈을 조명한다. 14장 가운데서 신학자로서 칼빈의 모습과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 부록까지 포함하면 11 장이다. 나머지 3장은 예정론, 권징론, 성찬론을 다룬다. 특별히 저자가 이 3개의 교리적인 면을 다루는 이유는 칼빈이 교회를 위한 신학자였으며 부패한 로마 카톨릭교회로 부터 순수하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칼빈의 개혁적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 때문에 이 책에 포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책은 칼빈이 신학자로서 형성된 배경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고 제네바의 개혁자로 활동하며 수많은 신학적 교리적 도전과 추방생활을 비롯한 핍박과 시련 속에서 말씀으로 종교개혁 신학을 완성하고 교회를 말씀으로 순수하고 거룩하

<sup>30</sup> 신복윤, 『개혁주의 신학의 특성들』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7), 292.

<sup>31</sup> 신복윤, 『존 칼빈』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13), 6.

<sup>32</sup> 신복윤, “머리말”, 『존 칼빈』, 5.

게 세우려는 신학자로서 교회론적 말씀의 종으로서 칼빈의 생애를 담고 있다.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사상에서 출발하여 칼빈주의 사상체계를 세웠고, 높고 영광스런 하나님과 낮고 부패한 인간을 보여주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준 신학자였으며, 죽는 날까지 글을 쓰고, 설교하고, 여러 회의에 참석하고, 성경을 순수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간결하고 용이한 방법(*brevitas et facilitas*)<sup>33</sup> 사용한 성경해석의 천재였으며, 인간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의 신학에 따라 일생을 살았다고 한다.<sup>34</sup>

2015년 남송은 윌리엄 몬터(E. William Monter)의 책 *Calvin's Geneva* 『칼빈의 제네바』(수원: 합동신학대학원, 2015)를 번역하여 그가 칼빈 연구의 역사적 소명에 충실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의 논문을 중심으로 『칼빈의 하나님의 이는 지식에 관한 교리』를 출판하려고<sup>35</sup> 준비하는 중에 소천하였다.

그의 저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남송은 개혁신학과 칼빈신학에 관련된 작품들을 번역하고 또 저술 활동을 통하여 개혁신학을 확립하였고 칼빈신학의 학술적 기초석을 세웠다고 평가된다.

## V. 남송(南松) 신복윤의 신학사상

본 논문은 신복윤의 저서에 나타난 그의 신학사상을 모두 다루지 않고 주로 성경관, 하나님의 절대주권, 교회론, 종말론, 그리고 개혁주의를 살펴본다.

<sup>33</sup> 이 방법에 대한 논문으로 Myung Jun Ahn, *Brevitas et Facilitas: A Study of a Vital Aspect in the Theological Hermeneutics of John Calvin* (Ph.D. Diss., Universiteit van Pretoria, 1998).

<sup>34</sup> 신복윤, 『존 칼빈』, 7.

<sup>35</sup> 김재성, “신복윤, 개혁신학의 정립과 칼빈 연구를 정초하다”, 656.

## 1. 성경관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하여 그는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따른다. 개혁신 학자들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리, 사실, 교훈에서 그리고 신앙과 행위에 관한 모든 일에서 무오하다”<sup>36</sup>고 믿었다고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인데, 여기서 영감이란 불어 넣는다는 말인데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 저자에 불어 넣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한다.<sup>37</sup> 성경은 교의학의 유일한 원천으로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우주와의 관계를 바로 알 수 있으며,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전체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sup>38</sup> 성경은 신학 연구에 기초가 된다. 그런데 신학 작업에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첫째로 성경 전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져야 하며, 탐구에 있어서 성경보다 앞서 가서는 안 되며, 더욱이 사사로이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증거하는 세가지를 주장한다.<sup>39</sup> 첫 번째는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한다. 성경은 많은 저자, 시간과 지역상의 많은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사상에서 통일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적응성이다. 적응성이란 성경은 영혼의 모든 부분을 향해 말한다는 것이다. 성경의 메시지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계급, 모든 영혼에게 동등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한다. 셋째는 성경의 도덕적 교훈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십계명이나 산상보훈에서 성경 윤리의 그 기초적 원리가 진술되었

<sup>36</sup> 신복윤, 『개혁주의 신학의 특성들』, 17.

<sup>37</sup> 신복윤, “바른신학이란 무엇인가?”, 『개혁총회보』, 1984, 1, 21.

<sup>38</sup> 신복윤, 『교의학 서론』, 45.

<sup>39</sup> 신복윤, 『교의학서론』, 197-199.



다고 한다.<sup>40</sup>

신학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신복윤은 목회의 원리도 바로 성경에 있다고 본다.<sup>41</sup> 성경에 기초한 목회가 바른 목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 개혁주의는 성경은 하나님에 의하여 영감된 경전임을 믿는 것이며, 구원을 위한 목회론으로 형성되어 있는 칼빈의 신학과 목회지침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복윤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역사적으로 규범적으로 권위를 갖으며, 신앙과 행위의 법칙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42</sup> 그러나 한국에서 개최된 "WCC는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최종적 규범이라는 것과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성경의 무오와 영감을 믿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회구원 지상주의,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등 기독교의 존재와 교회의 생명력을 위협하고 있다"며 WCC의 신학적 위험을 경고하였고, "갈라디아서 1장 7-8절의 말씀대로 바울의 경고를 한국교회는 마음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sup>43</sup>

그의 성경관은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였으며 성경의 권위와 통일성 그리고 영감에 있어서 전통적인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주장하였고 진보주의와 WCC의 주장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관점을 가졌다고 평가된다. 이런 성경관에 대한 강한 견해는 신학교 시절 김재준과 같은 당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혁신적인 성경관을 주장한 사람들에 대한 반발이 만들어낸 결과로 볼수 있다.

<sup>40</sup> 신복윤, 『교의학서론』, 66-67.

<sup>41</sup> 신복윤, "기웃거리지 말라", 『합동소식』, 14-1/104, 1999년.

<sup>42</sup> 신복윤, 『개혁주의 신학의 특성들』, 17-23.

<sup>43</sup> "WCC 무엇이 문제인가 책자 발간 - WCC의 신학적 위험 경고", <http://rpress.or.kr/xc/19052>, 2010, 10, 26.

## 2.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는 하나님 절대주권을 강조한다. 특별히 이런 강조는 그가 칼빈의 신학사상을 따르는데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신복윤에 의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정의, 그리고 인간의 운명, 자연과 자연의 법칙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과 모든 관계에서 자신의 통치권으로 행사하신다.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높이는 자들이 바로 칼빈주의자라고 한다.<sup>44</sup> 신복윤에 따르면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사상에서 시작하는데 이것이 칼빈주의 사상체계의 시금석이라고 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상은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자연계에서 우주의 창조주요 통치주이다. 하나님은 높아지고 인간은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한다.<sup>45</sup> 칼빈의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중심원리라고 그 필연적 결과로 인간의 전적 무가치함에 근거를 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자요, 율법 수여자이시며, 그의 의지는 도덕적 질서의 중심이 된다.<sup>46</sup> 신복윤은 위필드의 말에 동의를 한다.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 영광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피조물로서, 더더욱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무가치함을 통절하게 느끼고, 또 다른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경배와 경이에 사로잡히는 사람이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 즉 그의 지적 도덕적 영적인 삶의 활동 전체를, 그리고 그의 개인적 사회적 종교적인 모든 관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결심하는 자가 바로 칼빈주의자이다.<sup>47</sup>

<sup>44</sup> 신복윤, 『칼빈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 5.

<sup>45</sup> 신복윤, 『존 칼빈』, 6.

<sup>46</sup> 신복윤, 『존 칼빈』, 256.

신복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은 칼빈과 위필드와 같은 개혁사상가를 따르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진실 되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신학 작업은 불가능하다”<sup>48</sup>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에 대한 주장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의 결과는 아니지만 이미 선행적으로 알려진 카이퍼나 위필드의 견해에 동의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 3. 교회론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주소는 위기 속에 있다. 신복윤은 그 이유가 교회가 성경의 교훈에 확고히 서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할지를 모르고 있으며, 알아도 실천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며, 또한 세상의 죄와 부패를 위해 싸워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에 본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sup>49</sup> 따라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한국교회는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실현하고 성도들은 죄로부터 분리되고 온전 성화를 이루도록 정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칼빈의 교회론의 따르면서 교회의 순수성 회복을 강조하며 죄와 부패와 싸움을 통하여 거룩한 교회로 변화를 말한다.<sup>50</sup> 그의 교회론은 철저하게 칼빈의 교회론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그의 교회론의 분명한 진술은 칼빈탄생500주년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렸던 첫 날 예배시 설교에서 나타났다. 본문의 내용은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의 회복을 그의 교회론의 특징으로 보여준다. 교회는 끊임없이

47 신복윤, 『칼빈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 5.

48 신복윤, 『교의학 서론』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2), 4.

49 한국칼빈학회, 『한국칼빈학회 50년의 발자취: 회고와 전망』, 201.

50 한국칼빈학회, 『한국칼빈학회 50년의 발자취: 회고와 전망』, 201.

말씀으로 불결에서 씻어내는 일에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완전을 향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성도들 자신도 성화를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sup>51</sup>

마지막으로 신복윤이 주장하는 중요한 교회관은 교회의 권징을 강조하는데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순수하게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권징에 있다고 본다.<sup>52</sup> 특별히 순수한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권징에 대한 강조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경청해야할 주장임이 틀림없다고 평가된다.

#### 4. 종말론

신복윤은 종말론은 신학의 왕관이라서 조직신학 구성에 필수불가결하며, 신앙의 궁극적 문제를 다룬다고 한다.<sup>53</sup> 종말은 미래적인 사건이기에 누구도 직접 경험한 바가 없기에 여러 학설이 다양한 제기되고 있다. 2011년에 출판된 저서 『종말론』의 내용은 뽀콕 교수나 박형룡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종말의 역사와 한국의 종말 사상을 첨가한 점이 특이하다. 개인종말론과 일반종말론으로 구분하며, 종말론과 다른 교리와 관계 그리고 교회사에 나타난 종말론을 분석하고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다양한 견해들 그리고 종말론의 여러 견해들 도덕적, 철저한, 수직적, 실존적, 실현된, 미래적 종말론을 다룬다.

그는 종말론의 특징으로 “버림의 종말신학”을 주장한다. 죽음에 대한 가장 괴로운 생각들 중의 하나는 우리가 평소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버리고 간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 재물, 성공, 그리고

<sup>51</sup> 신복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칼빈과 한국교회』, 요한칼빈탄생500주년기념사업회, 안명준 편 (서울: SFC, 2010), 9-13.

<sup>52</sup> 신복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칼빈과 한국교회』, 9-13.

<sup>53</sup> 신복윤, 『종말론』, 15.

내일의 계획등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sup>54</sup> 여기서 신복윤은 재물을 지혜롭게 주님의 일을 위해 이 땅에서 사용하면 그 가치가 하늘나라에 보물로 쌓일 것이라고 한다(마 6:19, 20).<sup>55</sup> 즉 주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땅에 버려야 한다는 역설적 종말론을 주장한다. “버림의 종말신학”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연결된 신학적 종결이라고 볼 수 있다.

중간상태로서 하늘나라는 의식적으로 서로를 알아보지만 완전한 상태는 아니라고 한다. 중간상태는 불완전한 상태이다. 죄와 고통에서 해방되고 완전히 성화된 상태이지만 몸의 부활을 바라보기에 불완전한 상태라고 한다.

종말론에 특히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본다. 그의 재림은 교회의 위대한 소망이라고 한다. 재림의 근본적 성격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성경의 진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종의 열쇠와 같은 것이라 한다. 성경의 많은 교리들과 약속들 그리고 규례들은 재림교리에 비추어서 볼 때만 충분하게 이해된다고 한다.<sup>56</sup>

기존의 종말론과 많은 점에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연구가 있으면서 버림이라는 독특한 주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을 제시함 점에서 공헌이 있다고 평가된다.

## 5. 개혁신학

신복윤은 오늘날 교회가 신학, 교리의 부재에 빠져있는데 이런 무지와 오류로부터 벗어나려면 바른 신학을 교회의 주춧돌로 심어야 한다고 한다. 그에게 있어서 바른 신학이란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그 가르침을

<sup>54</sup> 신복윤, 『종말론』, 128.

<sup>55</sup> 신복윤, 『종말론』, 129.

<sup>56</sup> 신복윤, “신복윤 명예총장 인터뷰”, 『합동소식』, 1145.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따라 흠 없이 살게 하는 신학이다. 그런데 이런 바른 신학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말한다.

합동신학원 부원장 시절 신복윤은 1984년 1월 21일 날짜의 「개혁총회보」에서 바른 신학이란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를 의미한다고 하며, 5대 특징을 이미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주장은 한국에서 100년 동안 우리가 고수하는 이 개혁주의가 여러 가지 다른 이질적 신학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많이 가리어졌다는 핵 폭탄 같은 주장을 최초로 하였다. 당시에 앞선 선배 신학자들이 알려준 한국의 전통적인 신학을 개혁주의로 알고 있던 시기에 처음 그가 진정한 개혁주의를 찾기 위해 역사적 정통 개혁신학 속에 스며든 신비주의, 기복신앙, 세대주의 등에 대한 제거 작업을 최초로 시도하였다.

신복윤은 자신의 저서 『개혁주의 신학의 특성들』 서론에서 개혁 신학이란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구원의 전적 은혜성, 성례, 그리고 교회의 의회 정치”<sup>57</sup>라고 한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신칭의를 강조하지만 칼빈주의는 성경의 권위를 더 강조한다고 한다. 하나님의 주권은 칼빈주의 첫 번째기는 교리이며 칼빈 사상 체계의 중심태양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우주의 절대적인 최고의 통치자이며 작정, 창조, 섭리, 구속에서 주권적인 분이라고 한다. 칼빈주의는 5대 교리(전적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해)를 주장한다고 한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에서 시작하여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한다고 한다. 칼빈은 성찬에서 공재설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몸은 영적으로 성찬에 임재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 (*manducatio*)은 영적이어서 신앙으로 되기 때문에 불신자는 참여 할

<sup>57</sup> 신복윤, “머리말”, 『개혁주의 신학의 특성들』.

수 없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칼빈의 교회의 정치체제는 감독 정치와 회중 정치의 중간적 입장이라고 한다. 그는 바로 이런 칼빈주의가 곧 개혁주의이라고 한다.<sup>58</sup> 이런 그의 개혁신학은 칼빈의 신학체계와 돌트 신조에 기초하여 진술한 점에서 기존의 막연하게 주장되어졌던 유아기적 개혁신학에서 한걸음 진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 VI. 남송(南松) 신복윤의 신학적 공헌

신복윤의 신학은 칼빈을 통하여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신학을 세우는 방식이다. 칼빈과 성경의 두 기둥을 통하여 한국의 개혁신학을 바르게 정립하였고, 순결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헌신하였다. 그는 칼빈에 매료된 정통 칼빈 연구가요 정통 개혁신학자였다. 남송 신복윤으로 부터 직접 신학적 훈련을 받은 한국의 조직신학자나 칼빈학자는 매우 많다. 그가 칼빈신학교, 광신대학교, 총회신학대학원 대학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오랫동안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인격적으로 감동을 주었기에 그를 존경하는 제자들이 다른 어떤 학자들 보다도 풍성하다. 이런 면에서 그는 수 많은 제자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격적 스승으로 인정받는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현재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학자들로서 한국교회와 신학계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sup>59</sup> 그는 개혁주의와 칼빈주의의 핵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며 신학의 근본원리로서 성경과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관, “머림의 종말신학”, 그리고 사회를 개혁하려는 사상으로 일관된 신학사상을 가지고 있다. 신복윤의 공헌은 당시

<sup>58</sup> 신복윤, “서론”, 『개혁주의 신학의 특성들』.

<sup>59</sup> 조직신학과 관련하여 그의 제자로는 김길성, 조봉근, 김재성, 김성봉, 김영규, 안명준, 이승구, 김병훈, 이남규와 같은 많은 교수들이 있다.

개혁신학의 정립이 미흡한 시기에 진정한 개혁신학이 무엇인지를 확립한 점에서 두드러지며, 특별히 칼빈신학 연구의 학술적 기초석을 세우고 한국의 신학에 안내자의 역할을 점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의 문화관과 종말론에서 다른 학자들 보다도 더 큰 공헌을 볼 수 있다.

### 1. 칼빈연구의 학술적 기초를 세움

한국 최초로 칼빈으로 학위를 받은 신복윤은 1990년에 번역서 헨리미터의 『칼빈주의 근본원리』의 머리말에서 한국장로교회가 칼빈을 사랑하고 칼빈주의를 좋아하지만 연구와 지식이 부족하고도 매우 안타까워하였다. 그래서 칼빈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며, 바로 칼빈주의만이 한국교회가 복음과 윤리에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공해 준다고 말한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사상이며 이 주권사상이 그리스도의 삶 전체에 동기를 제공하고 그 삶을 지배하는 원리라고 한다.<sup>60</sup> 신복윤은 칼빈연구를 자신의 평생 과업으로 인식하여 이 분야에 번역을 시작하고, 논문과 저서를 집중적으로 발표하여 후학들에게 크게 공헌을 했다. 특별히 『기독교강요』 번역에 공헌했으며 서두에서 그가 쓴 “기독교강요: 역사, 저작 목적, 사상적 배경”은 강요 연구의 학술적 초석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논문은 당시 『기독교강요』에 대한 안내서가 없는 현실에서 그가 이룩한 공헌이었다. 『칼빈의 신학사상』에서는 칼빈의 신학의 중요 주제를 조직적으로 세우는데 안내서의 역할을 했으며, 『칼빈의 하나님중심의 신학』에서는 칼빈의 신학의 핵심을 하나님중심으로 신학으로 주장하였으며, 칼빈 연구에 대한 자서전적 연구서인 『존 칼빈』은 칼빈을 역사적 관점에서 그의 신학을 평가한 점에서 그는

60 H. Meeter, 『칼빈주의 근본원리』, 신복윤 옮김 (서울: 성광문화사, 1990), 5.



실로 큰 공헌을 이루었다. 특별히 칼빈의 신지식론 연구와 자연신학의 문제, 그리고 칼빈의 영혼관과 칭의론에 대한 연구는 국내 최초의 연구로서 후학들에게 이 분야의 기초석을 놓았다.

## 2. 정통 개혁주의 조직신학의 정립

신복윤이 한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은 한국의 조직신학의 틀과 내용에서 빈약한 시기였다. 그나마 박형룡이 개혁신학의 기초적 내용을 소개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런 시대적 한계 속에서 그는 박형룡의 계보를 이어 개혁주의 정통신학을 발전시켰다. 개혁신학자들의 책과 칼빈신학의 지속적인 연구와 발표를 통하여 빈약한 조직신학의 내용들을 깊이있게 심화시켰다.<sup>61</sup> 기존의 개혁신학에 스며든 세대주의와 신비주의를 제거하여 성경적 개혁신학의 틀위에 조직신학을 세웠다. 성경의 권위와 성경에 근거한 교리와 신학의 정립을 주장하였다. 그가 개혁신학을 정립한 것은 그의 스승인 박형룡의 신학을 칼빈신학을 통하여 좀더 분명하게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의 조직신학은 칼빈의 조직신학체계를 따른 것이었다. 그가 다룬 성경관, 신론, 인간론, 기독교론, 구원론,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주제들의 형태를 동일하게 취하고 있다. 또한 그가 주장한 『개혁주의 신학의 특성들』에서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충실하게 발전시킨 면들이 성경관과 신론 그리고 구원론과 교회론에서 철저하게 나타난다. 조직신학자 1세대인 박형룡 박사가 전통적인 개혁신학을 정리하고 소개했다면 2세대인 신복윤 박사는 좀더 칼빈의 신학체계를 주제별로 연구하여 개혁주의 조직신학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고 평가된다.

<sup>61</sup> 김재성, “신복윤 교수의 조직신학과 한국 교회사적 의의”, 『칼빈의 신학과 한국교회의 과제』, 59.

### 3. 교회의 순수성을 강조

세속화되는 한국교회에서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강조한 신학자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부패로 인해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신복윤은 이런 타락의 치료를 위하여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여 참된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도록 촉구하였다. 칼빈탄생500주년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예배의 설교를 통하여 바로 이런 순수한 교회론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제창하였다.<sup>62</sup> 이런 그의 신학과 교회에 대한 사상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교훈인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는 모토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김명혁과 함께 만들었다.<sup>63</sup>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시급한 주제로서 바로 교회의 순수성을 인식하게 되는데 바로 교회의 바른 회복을 위해 강조된 점이 그의 공헌이라고 보여진다.

### 4. 해외 정통 개혁신학의 소개

해외 정통 개혁신학을 번역하여 소개한 공헌은 한국교회에 지대하다. 벌썩의 조직신학은 교과를 초월하여 모든 교단의 신학교의 교재로 사용되었다. 번역 또한 명료하게 거의 완전하게 전달되어서 한국의 대다수의 신학자와 학생과 심지어 비 장로교 교단의 신학교에서 필독서로 애용되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헨리미터의 『칼빈주의 근본원리』, 클로스터의 『칼빈의 예정론』, 벌썩의 『기독교신학개론』과 『기독교 교리사』등 수많은 정통신학자들의 서적을 소개하여 신학적 정보가 없는 한국교회가 외국신학자들의 저서를 접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958년 3월에 『기독교신학개론』이<sup>64</sup> 번역되었는데 1년이 지나면 60년

<sup>62</sup> 신복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칼빈과 한국교회』, 9-13.

<sup>63</sup> 김명혁, “장감성철순 교회의 장·단점”, 뉴스파워, 2014/11/15, [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id=26017](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id=26017).

이라는 세월이 된다. 이 책은 많은 교단에서도 애용되었다. 해외의 정통 개혁신학에 대한 신학적 지식의 창고가 많지 않은 시대에 그의 이런 번역 사역은 후세대들에게 새로운 배움을 지평을 확장해 주었다고 평가된다.

## 5. 변혁적 문화관

적극적 문화관이라는 표현은 신복윤이 개혁총회신보에서 직접 언급한 것이다.<sup>65</sup> 그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위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초창기부터 문화적 사명을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 한국교회는 이 문화적 사명을 매우 등한히 하는데 그 이유가 한국교회내의 경건주의, 근본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칼빈주의는 신학에서 국한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예술, 그리고 문학 전반에 걸쳐서 다루는 사상체계가 바로 칼빈주의라고 역설한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인 문화관을 가지고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이것들을 발전시키고 기여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한다. 칼빈주의자들은 기도하고 성경만 보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고 적극적 문화관을 실천하는 자로 본다.<sup>66</sup>

그는 세상에서 도피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 다스려지는 영역으로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주장한다. 신복윤은 “세계도처에는 전쟁, 기근, 지역 혹은 민족 이기주의, 성문제, 청소년 문제, 마약, 인권등 수많은 문제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sup>64</sup> Louis Berkhof, 『기독교신학개론』, 신복윤 역 (서울: 은성문화사, 1958).

<sup>65</sup> 신복윤, “바른신학이란 무엇인가?”, 『개혁총회보』, 1984년 1월 21일.

<sup>66</sup> 신복윤, “바른신학이란 무엇인가?”, 『개혁총회보』, 1984년 1월 21일.

되도록 우리에게는 남다른 관심과 노력이 필요”<sup>67</sup>하다고 주장한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이 한국에 소개되기 전에 이미 신복윤은 자유주의자들이 늘 비판한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에 관련하여 보수주의와 근본주의의 약점들을 간파하고 일반은총을 균형 있게 강조하였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특별히 경건주의의 약점과 근본주의가 학문을 도외시키는 경향에 주의를 주었다.

칼빈은 교회를 순수하게 보존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 일(직업)에 성실하고, 선한 일로 자기 믿음을 보여주며,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되기 위해 노력하기를 원했다. 여기서 신복윤은 칼빈의 개혁적 세계관과 문화관을 보여 준다. 복음 설교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결과가 없을 경우에 그런 상황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르틴 루터와 달리 칼빈은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을 향하여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변혁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신복윤은 평가한다. 극단적 분리를 주장한 도나티우스를 반박한 칼빈을 바르게 평가하며 세속의 질서를 유지하는 점에서 칼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점에서 신복윤은 사회를 성경적·변혁적 개혁주의 문화관을 칼빈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수용한 점을 살펴볼 수 있다.<sup>68</sup> 그의 변혁적 문화관의 강조는 당시 다른 학자들이 주장하지 못한 것으로 일반은총을 개혁신학으로 제시한 점에서 공헌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가 변혁적 문화관에 대해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연구 논문이 많이 발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sup>67</sup> 신복윤, “경건에 좀더 주력했으면”, 『기독교개혁신보』, 1993년 1월 11일.

<sup>68</sup> 신복윤, 『존 칼빈』, 248.

## 6. “버림의 종말신학”

그는 독특하게 “버림의 종말신학”을 주장하였다. 현재의 소유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 가치있게 사용하라는 지혜의 종말론을 주장한 점이 매우 특색있는 “버림의 종말신학”이다. 신복윤은 좀 손해를 보며 살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정신인데, 이것은 사회에 유익을 준다고 한다.<sup>69</sup>

신복윤은 칼빈주의자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전 존재뿐만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종교적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그의 실질적 통치와 변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를 말한다.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기때 우리는 그 분 앞에 나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청지기로서 살아갈 것을 교훈하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땅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는 청지기적 사명을 통한 “버림의 종말신학”을 강조한 신학자였는데 이런 그의 공헌은 다른 학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은 독특한 그의 신학적 주장으로 평가된다. 이것은 막스 베버(max weber)가 평가한 칼빈의 직업윤리와 상통한다고 볼수 있다. 검소하고 절약하며 합리적 삶을 강조했던 칼빈의 사상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버림의 종말신학”에 대한 깊은 신학적 연구가 충분하게 발전되지 못한 점이 있다.

## VII. 결론

남송(南松) 신복윤(申福潤)박사는 시련과 환난의 시기에서 한국의 신학

<sup>69</sup> 신복윤, “기독교인과 나라사랑”, 「기독교개혁신보」, 1992년 6월 29일.

자로서 한국의 정통 보수 개혁신학자 박형룡박사를 이어 더욱더 철저하게 칼빈의 신학적체계를 접목하여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칼빈학자로서 한국 신학계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그의 이런 공헌은 칼빈연구의 학술적 기초를 세운 점과 그의 변혁적 문화관의 강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땅의 것을 포기하는 역설적 주장으로 “버림의 종말신학”에 대한 신선한 강조에서 보여졌다. 칼빈이 고통과 시련, 그리고 도전과 논쟁을 통하여 그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신학을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세웠던 것처럼 그는 칼빈의 사상에 철저하여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펼치며,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잘못된 한국의 신비주의, 세대주의, 유아기적 근본주의를 정돈하여 올바른 정통 개혁주의를 세우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런 그의 신학적 사고는 그의 신학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에 철저하였고,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실현하기 위하여 칼빈의 신학에 일치하는 그의 신학적 특성과 겸손함을 보여 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칼빈학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칼빈은 죽기전 마지막으로 제네바 목사들에게 말한 고별사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신실하게 해석하였다고 말하였다. 바로 이런 칼빈의 신학정신을 따르는 신복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연구하고 후학들에게 정통 신학을 바르게 가르친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신학은 철저하게 성경을 보여주는 길로서 칼빈신학을 존중하는 신학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신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확고하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는 정통 칼빈학자였음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그의 신학의 위대함과 더불어서 우리는 아쉬움 부분의 평가를 통하여 신학의 학문적 발전을 바라보게 된다. 특별히 그가 개혁신학의 특징을 정립하는데 있어서는 공로를 세웠지만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조직신학의 모든 주제들을 포함하는 저서들을 완성하지 못한 점은

그의 시대적 연구의 한계이다. 특별히 인간론과 기독교론 그리고 구원론에 대한 연구저서를 남기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그가 남긴 부분적인 조직신학은 벌코프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형성되었지만 유럽의 개혁신학의 소개와 신학적 유산이 다소 미흡한 적을 보게 된다. 또한 그의 연구의 텍스트는 주로 대표적인 정통 개혁신학자들의 주장에 근거하여 신학적 주제들을 다루게 되었기에 안전한 내용을 진술한 장점은 있었으나 좀더 새로운 또 다른 주장들에 대한 소개와 분석과 평가에 있어서 여러 학술논문이나 주석적 작품을 많이 사용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시대적인 학문 연구의 스타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제한된 작품의 의존도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아쉬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칼빈연구와 그가 정립한 개혁신학의 유산은 한국 신학계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남송 신복윤 박사에게 대한 추후 연구과제로는 조직신학의 특징과 신학방법론 그리고 그의 칼빈신학, 종말론, 그리고 신학적 해석학과 같은 세부적인 심층적 연구가 더욱더 절실하다.

〈Abstract〉

## The Life and Theology of Bockeyun Shin

Myung Jun,Ahn

(PyeongTae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trace the theological tradition of being formed through the life of Bockeyun Shin, to analyze his works and to investigate of his theological contribution.

There were two great theologians of Korea who influenced on the theology of Bockeyun Shin. He honored and learned directly teachers; Hyungryong Park and Yunesune Park. From Hyungryong Park he learned systematic theology and reformed theology, and from Yunesun Park he learned his faith and his morality and his academy as the standard.

His translating books actually were theological writings as the treasures in the field of Korean Theology. His main writings were the books of Calvin's theology. His this thought appeared in emphasizing on the doctrine of the Bible, the sovereignty of God, the doctrine of the church, eschatology, and reformed theology.

His theology was the method on the basis of the biblical principles according to understanding the Bible from the perspective of Calvin. He correctly arranged the Korean reformed theology through two poles of Calvin and the Scriptures, made an afford to build the pure church. He was the orthodoxy Calvin expert and the orthodoxy reformed theologian.

His theological contribution made the academic basis of Calvin studies in Korea. He developed the orthodoxy reformed systematic theology,



insisted on the purity of the church, emphasized on the transforming culture, and stressed the eschatology of giving up.

He emphasized God centered theology, and insisted that the mighty sovereignty of God should be applied to all spheres. He made a great contribution on building the true orthodoxy reformed theology by means of critically arranging Korean mysticism, dispensationalism, and extreme fundamentalism.

**Keywords:** Hyungryong Park, Yunesun Park, Bockeyun Shin, Theology of Calvin, Reformed Theology, Sovereignty of God, View of Culture, Eschatology

### 〈참고문헌〉

김남식, 『아름다운 원칙주의자 해원 정규오 목사』, 서울: 새한기획 출판부, 2007.

김명혁, “장감성침순 교회의 장·단점,” 뉴스파워, 2014/11/15,

김재성, “신복윤 교수의 조직신학과 한국 교회사적 의의,” 『칼빈의 신학과 한국교회의 과제』, 신복윤 명예총장 은퇴기념 논문집 출판위원회 편.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1.

\_\_\_\_\_. “신복윤, 개혁신학의 정립과 칼빈 연구를 정초하다,” 『인물로 보는 연세신학 100년』,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동문회 편저. 서울: 동연, 2015.

김준곤, “나의 친구, 신복윤,” 『칼빈의 신학과 한국교회의 과제』, 『칼빈의 신학과 한국교회의 과제』, 신복윤 명예총장 은퇴기념 논문집 출판위원회 편.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1.

- 김홍만, “장공 김재준의 신학 여정”, 『한국개혁신학』 38 (2013): 81-117.
- 신복윤. 『기초 교리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부, 1981.
- \_\_\_\_\_.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서울: 성광문화사, 1990.
- \_\_\_\_\_.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성광문화사, 1993.
- \_\_\_\_\_. 『종말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1.
- \_\_\_\_\_. 『교의학 서론』.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원출판부, 2002.
- \_\_\_\_\_. 『칼빈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원출판부, 2002.
- \_\_\_\_\_. 『존 칼빈』.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원출판부, 2013.
- \_\_\_\_\_. “신복윤 명예총장 인터뷰,” 『합동소식』, 제1145호, 2001년 6월 30일.
- \_\_\_\_\_. “추천사,” 『나의 아버지 박형룡』, 박아론 지음.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4.
- \_\_\_\_\_.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든든한 표준,” 『박윤선과의 만남 2: 교회개혁과 개혁주의 신학』, 안만수. 서울: 영음사, 2013.
- \_\_\_\_\_. 『개혁주의 신학의 특성들』.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7.
- \_\_\_\_\_. “기웃거리지 말라,” 『합동소식』, vol. 14-1, 104호, 1999년.
- \_\_\_\_\_. “WCC 무엇이 문제인가 책자 발간 - WCC의 신학적 위험 경고” <http://rpress.or.kr/xe/19052>, 2010, 10, 26.
- \_\_\_\_\_.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칼빈과 한국교회』, 요한칼빈탄생500주년기념사업회,
- 안명준 편. 서울: SFC, 2010.
- \_\_\_\_\_. “바른신학이란 무엇인가?” 『개혁총회보』, 1984년 1월 21일.
- \_\_\_\_\_. “경건에 좀더 주력했으면,” 『기독교개혁신보』, 1993년 1월 11일.
- \_\_\_\_\_. “기독교인과 나라사랑,” 『기독교개혁신보』, 1992년 6월 29일.
- 한국칼빈학회. 『한국칼빈학회 50년의 발자취: 회고와 전망』, 박경수 편저. 성남: 북코리아, 2014, 192.
- 한국개혁신학회. “특집: 박형룡의 개혁신앙 재조명,” 『한국개혁신학』 21 (2007).

한국개혁신학회. “박윤선의 개혁신앙 재조명”, 『한국개혁신학』 25 (2009).

“순천군 [順川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최감은 목사”, 한국교회 순교자기념사업회, <http://www.kcmmma.org/>.

“신복윤”, 『동아일보』, 1972년 7월 8일(토요일) 5면, 학위소식(철학).

Ahn, Myung Jun. *Brevitas et Facilitas: A Study of a Vital Aspect in the Theological Hermeneutics of John Calvin*. Ph.D. Diss., Universiteit van Pretoria, 1998.

Berkhof, L. *Manuel of Christian Theology*. 신복윤 역. 『기독교신학개론』. 서울: 성광문화사, 1958(은성문화사). 1974. 1996.

\_\_\_\_\_.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신복윤 역. 『기독교 교리사』.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0.

\_\_\_\_\_. *The Doctrine of the Church and the Means of Grace*. 『교회론-교회와 은혜의 수단에 관한 교리』. 서울: 성광문화사, 1990.

Boettner L. *Roman Catholicism*. 『천주교의 마리아 교리는 성경적인가?』. 서울: 성광문화사, 1990.

Calvin, John.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중흠·이종성·신복윤·한철하 공역. 『기독교 강요』.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Henry, Carl H. F. *European Theology in the Twentieth Century*. 『20세기 구미신학』. 서울: 성암문화사, 1959.

Klooster, F. K.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칼빈의 예정론』. 서울: 성광문화사, 1987.

Ladd G. E. *Crucial Questions about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 서울: 성광문화사, 1990.

Meeter, H. *The Fundamental Principle Calvinism*, 『칼빈주의 근본원리』. 서울: 성광문화사, 1990.

Monter. E. William, *Calvin's Geneva*. 『칼빈의 제네바』. 수원: 합동신학대학

원, 2015.

Stalker, James. *The Life of Christ*. 『긍정적인 삶을 주는 예수님 이야기』.

서울: 성광문화사, 1965.

K C I